

# 한전 시총 5조7456억 급등...광주·전남 상장사 ‘들썩’

한전, 시총 25조2292억원...에너지고속도로·전기요금 인상 기대감

광주·전남 상장사 37곳 시총 32조2963억...전월 대비 6조5333억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중심으로 광주·전남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6조 5000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상장사 시총의 상승분 대부분은 한전 주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했던 ‘에너지 고속도로’와 더불어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5년 6월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 증시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소재 상장법인 37개사의 시총은 6월 말 기준 32조 2963억원으로 전월(25조 7630억원) 대비 6조 5333억원(25.4%) 증가했다.

종목별로 보면 한전 시총이 25조 2292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 7456억원(29.5%) 올라 가장 많이 뛰었고, 한전KPS(+7605억원·39.1%), 금호에이치티(+188억원·13.4%) 등 순이었다.

시총 증가폭으로는 코스닥 시장에서 파루가 1달 전보다 188억원(43.7%) 올라 가장 컸다.

이번 광주·전남 상장사들의 시총 상승분 중 한전이 87.4%를 차지했다. 대부분 한전으로 인한 시총 성장으로 분석되는데, 지난달 한전 주가가 폭등했던 것이 전반적인 시총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 주가는 지난달 24일 올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0.71% 상승한 3만 41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는 최근 52주 신고가로, 전년과 비교하면 76.23%나 상승한 수치다. 한전 주가는 다음날에도 개장 20분만에 8% 가까이 주가가 오르면서 시총에도 대폭 상승 영향을

■ 6월 말 광주·전남 상장법인 시총 증가액  
(상위 3개 종목·단위:억원)

|      | 종목     | 시가총액    | 증가액    |
|------|--------|---------|--------|
| 유가증권 | 한국전력   | 252,292 | 57,456 |
|      | 한전KPS  | 27,045  | 7,605  |
|      | 금호에이치티 | 1,589   | 188    |
| 코스닥  | 파루     | 619     | 188    |
|      | 에스오에스랩 | 2,376   | 80     |
|      | 남화토건   | 514     | 58     |

미쳤다.

한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도 지난달 20일을 기점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새 정부가 한전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계획과 향후 전기요금 인상이 한 차례는 있을 것이라는 전망 등이 나오면서 주가 및 시총 상승에 가속도를 붙인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출범 효과로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투자자의 주식 거래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주식거래대금은 3조 7418억원으로 1달전보다 1조 4539억원(63.5%) 급등했다. 광주가 1조 1250억원, 전남은 3289억원 늘었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거래대금이 2조 5854억원으로 1조 2150억원(88.7%) 늘었고, 코스닥 거래대금은 2389억원(26.0%) 증가한 1조 1565억원을 기록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이 ‘배전망 유연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VPP 표준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전 제공〉

## 한전, 분산에너지 활성화...통합발전소 플랫폼 표준안 공개

공청회에서 ‘VPP 기술·DSO 연계’ 가이드라인 발표

한국전력공사(한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통합발전소(VPP)와 배전망운영자(DSO) 간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과 표준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한전은 앞서 지난 3일 서울 코엑스에서 ‘배전망 유연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VPP 표준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분산에너지 사업자, 에너지 IT 기업, 학계, 관련 협회 등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했다.

한전은 공청회에서 VPP 플랫폼 구조, DSO 연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플랫폼’ 표준안을 공개하고, 향후 도입할 예정인 ‘지역 유연성 서비스 운영규칙’ 초안 등을

선보였다.

특히 한전과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가 협력해 개발하고 있는 표준안에는 제어 구조, 구성요소, 데이터 구조 및 교환 방식, 보안 등 다양한 기술적 요구사항들이 반영됐다.

VPP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반응(DR) 등 다양한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아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력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DSO와의 정보 교환이 필수적이다.

한전은 2019년부터 VPP와 DSO 간 연계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DSO 플랫폼을 제

주분부에 구축했다.

한전은 공청회 참석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력 시장 참여 및 운영 관리 표준안 등을 보완하고, 오는 9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번 표준화를 통해 VPP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고, 전기자, 수요반응 등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양승호 한전 배전망사업실장은 “배전망의 유연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운영하게 되면 지역별 전력 과부하를 해소하고, 전력계통의 효율성과 안정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전KPS 얼굴이 될 캐릭터 공모합니다”

8월 8일까지 접수

한전KPS는 “오는 8월 8일까지 ‘2025년 한전KPS 캐릭터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한전KPS를 대표하는 홍보용 캐릭터를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제작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소통을 활성화하고 친근감 있는 캐릭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발전·송전 등 전력설비 성능과 신뢰도 제고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전KPS의 비전을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는 캐릭터 개발’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한전KPS 누리집 ‘열린KPS 1번가’ 게시판에서 작성 양식을 내려받고, 직접 제작한 캐릭터 디자인을 담아 게시판에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된다.

한전KPS는 평가단 심사를 통해 오는 9월 중 4



건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최우수상 1건(500만원), 우수상 1건(300만원), 장려상 2건(각 100만원)으로 나뉘며, 총 1000만원의 상금을 준비했다.

최종 선정된 우수 디자인 캐릭터는 검토를 거쳐 향후 한전KPS 홍보용 캐릭터로 제작되며, 각종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국민 소통 활성화 창구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

## 농어촌공사, 기후 위기 시대 농업용수 관리 방안 모색

농어촌물포럼 토론회 참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년 농어촌물포럼 제1차 토론회’에 참여해 기후 위기 시대에 농업용수 관리 등의 방안을 모색했다”고 8일 밝혔다.

토론회는 농어촌물포럼이 주최하고, 어귀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한국농공학회, (사)한국쌀전업농중앙회,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한국특산물경영체중앙연합회 등이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지 상습침수의 원인과 대책, 통합 물 관리를 위한 지능형 인공지능 기반 범용농지, 인공지능 기반 범용농지 관수전략 및 원예작물 재배 실증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발표자로 안현욱 충남대 교수가 나서 정밀 수리해석과 배수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성준 건국대 교수는 스마트 농업을 위한 범용농지 기반 통합 물 관리 기술 구축 필요성을 제



안했다. 박종석 충남대 교수는 코어어 폐배지를 활용한 정밀 관수 기술이 물 절감 및 수확량 증대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실증 사례로 제시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은 맹승진 한국농공학회장을 좌장으로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노석원 농촌진흥청 박사, 이광야 충남대 교

수,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장상규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처장, 조효섭 금강홍수통제소 소장이 참여해 정책, 기술, 데이터, 재해 대응 등 다양한 관점에서 농어촌용수 관리 방향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사람의 보험과  
전 국민의 경제부담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의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T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Korea Fire Insurance Association

IGFA 보험GA협회  
한국보험협회